

특기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3)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지난 호(12)와 본보의 [충재 선생의 학문사상] 연재(2)에 선생의 절친한 지음인 음에 이자가 보내주고 또한 중종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근사록近思錄"이 임금께 진강하는 중요한 교제가 되었음을 간단히 그 연혁과 함께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양 유교문화권(한, 중, 일,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유학사, 곧 성리학(신유학, 정주학, 주자학)사와 이를 통한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그리고 충재 선생 63세 때(중종 35년 : 1540년) 3월 경복궁의 경회루(慶會樓) 상화연(賞花宴) 잔치 때 일화 및 영·정조시기에 까지 임금이 직접 봉하 달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 책을 진압하고 내린 여러 가지 상찬(賞讚)과 보답의 의미를 대강 기술하면서, 충재 선생의 공업과 학문사상의 실상이 일반적인 기존의 한국철학사나 유학사 서책에 거의 상재되지 못하였음을 비판적으로 논하였다.

이번에는 이 책 "근사록"에 대하여 그 편찬자와 해제를 간단히 보충하고 넘어 갈까 한다. 이 책은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와 그 친구인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효종 순희 2년(1175년)에 북송의 성리학자인 주돈이(周敦頤, 호는 여계 濂溪, 1017-1073), 장재(張載, 호는 횡거 橫渠, 1020-1077), 정호(程顥, 호는 명도 明道, 1032-1085), 정이(程頤, 호는 이천 伊川, 1033-1107)의 글을 읽고 622조를 발췌하여 14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주희는 일반적으로 '주자(朱子)'로 통칭되고, 아버지 위재(韋齋)가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宰相) 진회(秦檜)와의 금나라에 대한 외교상의 의견충돌로 퇴직하고 복건성 우계(尤溪)에 우거(寓居)하였다. 이 때 주자가 출생하고 이곳에서 주자 14세 때 아버지가 죽었다. 19세 때 진사(중국어에서는 대과급제)하였다. 선조는 대대로 안휘성 휘주(徽州) 무원(婺原)의 호족이었다. 이 저술을 즈음하여 원적을 무원이 신안군(新安郡) 소속으로 신안으로 옮겼다. 자는 원희(元晦)·중희(仲晦), 호는 회암(晦庵)·회옹(晦翁)·자양(紫陽)·운곡산인(雲谷山人)·창주병수(滄洲病叟)·돈옹(澗翁) 등이다. 주자의 정치에 대한 의견은 '임오증봉사壬午應詔

封事'나 무신봉사(戊申封事)에 잘 나타나 있으며, 또 절동(浙東)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대기근(大飢饉)을 구제하였다는 실적도 있다. 그러나 만년에는 한탁주가 주희를 파직시키고 이듬해부터 주희의 학문을 정도에서 여긔난 거짓 학문, 즉 '위학(僞學)'으로 지목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해금(解禁)이 있기 전에 죽었다. 그 후 그의 학문이 인정되어 '문(文)'이라는 시호가 내리고 다시 태사(太師)·휘국공(徽國公)이 추증(追贈)되었다. 주자의 글은 막내 아들 주재(朱在)가 편찬한 "주문공문집朱公文文集"(10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이 있고, 주자와 그 문인제자의 평생문답을 수록한 것을 1270년에 여정덕(黎靖德)이 편찬한 "주자어류朱子語類" 140권이 있다. 여조겸은 주희와 장식(張栻, 자는 경부 敬夫, 호는 남현 南軒, 1133-1180)과 함께 당대 이른바 '동남삼현(東南三賢)'의 한 사람으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동래(東萊), 절강성 금화(金華) 출신. 상사우승(尙書右丞) 여호문(呂好問)의 증손자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책들을 접

할 수 있었으며, 훌륭한 스승과 학문 친구(講友)들을 만나 주자·장남현·육구연(陸九淵, 호는 존재存齋·상산象山, 1139-1192, 강서성 무주無州 금계金溪 출신) 등과 더불어 강학(講學)에 힘써 대성하였다. 주자와 육상산과 그 형인 육복재(陸復齋)의 그 유명한 '아호사에서 회합(鵝湖之會)'-학문논쟁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남송 효종 순희(淳熙) 2년(1175년), 즉 "근사록"이 편찬되는 해에 강서성 광신부 상요현에 있는 아호사에서 학술회합이 있었다. 토론과 정에서 복재와 상산 형제에게 주자가 안색이 바뀌고 말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사정이 "근사록"편찬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2차 논쟁은 순희 10년(1183년)에 있었다. 주자는 공부 방법으로서 성즉리(性即理)의 입장에서 도문학(道問學)을 중시하여 이른바 '이학(理學)'이라 하고, 육상산은 심즉리(心即理)의 입장에서 존덕성(尊德性)을 강조하여 이른바 '심학(心學)'이라 한다. 그는 "근사록"편찬 외에도 저서에 "동래좌씨박의(東萊左氏博議)" 25권, "어씨가족독기(呂氏家塾讀書記)" 32권 등

이 있다. "근사록"의 편찬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저간의 사정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주자의 발문(1175년 5월 5일)과 그 다음해에 여동래의 발문(1176년 4월 4일)에 잘 나타나 있다. 주자 발문 첫머리에 "순희 올마년 여름에 동래의 여백공(조겸)이 동양(東陽)으로부터 와 내가 있는 한천정사(寒泉精舍)를 지나다가 열흘 동안 머물렀다. 서로 함께 주자(周子 : 주연계)·정자(程子 : 정명도·정이천)·장자(張子)의 책을 읽고 그들의 학문이 넓고 크며 행하고 두터워서 끝이 없음을 감탄하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입문할 것을 모를까 두렵게 여겨, 도(道)의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과 날마다 쓰기에 알맞은 것을 가려 함께 엮었다..."고 하였다. 충재 선생이 "근사록"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사림과 형성과 기묘명현의 학문경향성, 즉 선지후행(先知後行)과 지행병진(知行並進)에서 수신(修身)의 실천을 중요시 것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그것은 곧 "근사록"의 책이름을 정한 유래가 되는, "논어

'자장子張' 편에 자하(子夏)가 말한 '널리 배워 그 뜻을 독실하게 하고 물음을 절실히 하여 생각을 (내 몸) 가까이 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을 따름이다(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라는 것이다. 또한 유학의 종지(宗旨)이기도 하며 "대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뜻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다. 충재 선생 42세 때(1519년) 2월에 황보공(皇甫公) 인(仁)의 묘비를 세웠다. 황보인은 단종 때 영의정으로 수양대군(세조)의 계유정난으로 참화를 당해 자신도 보전하지 못하여 파주 천침(泉岾)의 산소가 거의 황무지가 된 것을 충재가 수리하고 묘표를 처음 세웠다. 황보인은 충재의 모부인 윤씨의 외조부였다. 2월 15일에 가선대부 예조참판(종2품 품계와 벼슬)에 승진되었고 4월에 동지중추부사를 제수 받았다. 4월 16일에는 어버이 나이 71세라는 이유로 고향에 돌아가 봉양하기를 계청하였는데, 임금께서 윤허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화살을 맞은 황제 사마충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국헌공 권식과 漢文小說

■ 申海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적목본 <강로전>

(지나호에 이어서)

"중대한 일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그날 밤이 되자 곧바로 누르하치에게 들어가 고하였다

"왜인의 마음이 불온하니, 내일 검술을 꼭 시험해 보고자 한다던 모름지기 불상사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누르하치가 크게 놀라서 급히 팔고산(八高山)에게 각자 막을 준비를 하라고 시켰다. 또 정예 심복 3,000명을 뽑아서서 모두 손에 쇠못을 들고 비밀리 바깥쪽을 포위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밝자, 왜인들은 바깥쪽에 들어와 손바닥에 짐을 뱌고 안뜰로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지나,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누르하치의 명령을 전하였다.

"왜인은 각각 3명이 한 조가 되도록 하여 백조로 편성하라. 매번 한조가 안뜰에 들어가서 검술 시범을 마치고 나오면 또 다른 한 조가 나와 안뜰로 들어가서 시범을 하여라. 차례대로 교체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니, 어지럽게 뒤섞이지 않도록 하라!"

왜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원컨대, 300명이 한 조가 되어 일시에 용맹을 시험함으로써 장관(壯觀)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였다.

"대장의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상 다시 바랄 수는 없다."

결국 3인 1조의 왜인을 안뜰로 들어가게 하여 검술 시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다만 흰 무지

개가 번쩍이고 번개가 명멸하는 가운데 뛰는 듯이 아주 빠르게 천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보이거늘, 뜰 가득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색이 바뀌지 않은 자가 없었다. 시범이 무르익을 즈음, 3인의 왜인이 누르하치를 노려보고는 칼춤을 추며 달려들자 팔고산이 일제히 창으로 마구 찌르니, 적은 수로 무리를 대적할 수 없는지라 왜인 세 명은 그 자리에서 격살(格殺)되고 말았다. 바깥쪽에 있던 나머지 300명의 왜인들도 모두 쇠못등이에 맞아 죽었다. 또한 왜인의 칼에 베어 상처를 입거나 죽은 오랑캐도 500 내지 600여 명이나 되었다.

누르하치가 잔을 들고 흥립에게 감사하며 말하였다.

"공(公)이 나를 살렸으니, 내 어찌 그대를 심복(心腹)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흥립이 말하였다.

"같이 입은 은혜가 정중하였으니, 어찌 심복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자리를 마련하여 두 사람은 서로 속마음을 죄다 드러내며 말하였다. 누르하치가 은밀히 물었다.

"조선군의 마음은 어찌해야 반드시 평온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흥립이 대답하였다.

"조선군의 습속은 용감하고 날랜 왜인(日本)과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죽는 것을 아까워하고 겁이 많으니, 의당 근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누르하치가 물었다.

"군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반이라고 불리는 장수(將帥)들이 어찌 우호의 마음이 있겠느냐?"

흥립이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아, 두세 번 거듭 물었으나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누르하치는 끝내 항복한 군졸을 모아 개하여 손바닥이 부드럽고 살찐 자 40여 명을 끌내도록 하고는 말하였다.

"이들이 이른바 양반이라는 자들이다. 동문 밖으로 끌고 나가 처단하라!"

그러하여 서쪽 변경으로 출정했던 용사들이 이날 모두 죽었는데, 오직 이만환, 박남영(朴蘭英), 이일원(李一元) 등 10여 명만은 흥립의 심복이라 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흥립은 날로 누르하치의 총애가 도타워지자, 그 고마움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는 특별한 공을 세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하루는 소리 높여 말하였다.

"지금은 병사들도 강하고 장수들도 용맹하거늘, 단지 건주라는 공백한 곳만 지키고 있으시겠습니까?"

누르하치가 말하였다.

"바로잡을 것과 다져야 할 것을 주저하지 말고 명확히 말해보라!"

"요동은 중국의 옛 영토가 아닙니까? 심양(瀋陽)은 곧 요동의 요해처(要害處)이니, 심양을 근거지로 삼아 요동을 얻게 되면 중국은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우리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계를 정하고 관부를 새로 창설하는 것은 저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일어나서 절하고 말하였다.

"공(公)의 말은 잡초로 짝 막혔던 길이 터지듯 나를 문득 깨치게 해주었네."

그리고는 서쪽을 침범하기로 결의하니, 때는 천계(天啓) 신유년(광해군13, 1621) 봄이었다. 출발할 즈음, 누르하치는 경서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인데, 살려준 은덕을 입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거늘 어찌하여 보답할 생각을 않느냐?"

경서는 매양 흥립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신이 욕되고 나라를 저버리게 됨이 한스러워하며, 자기편을 얻어서 장차 일을 도모하기를 바랐던 차에, 누르하치의 말을 듣고는 즉시 대답하였다.

"만일 저를 쓸 곳이 있다면, 저는 만 번을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선봉이 되어 요동을 공격하려는가?"

"요동성을 지키는 장수가 저와 깊은 교분이 있으니, 제가 응당 은밀히 결탁하여 내응(內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전국꽃배달 서비스 전문업체 20년전통의 농장직매 고송농원. 도·소매, 경조화환, 조경공사, 꽃바구니, 각종화환, 관엽. 서울 山岳會 權赫九.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http://flowertown.kr TEL (02)5752-5555 FAX (02)5750-656 H.P 019-240-4242

세무법인 和仁. 대표 / 세무사 권혁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능수문물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Mobile:010-6304-6565 E-mail:fax21@yahoo.co.kr. 본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파물시장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